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러시아

Russian Federation

2022년 3월 10일 | 선임조사역(팀장군) 김찬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7,098천 km ² (2021) 	인구 146백만 명 (2021 ^e)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중국 및 신흥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GDP 16,476억 달러 (2021 ^e) 	1인당GDP 11,273달러 (2021 ^e) 	통화단위 Russian Ruble (RUB) 	환율(US기준) 73.59 (2021)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면적의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며, 2020년 기준 세계 3위의 원유생산국 및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푸틴 대통령이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2020년 7월 개헌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음. 2020년 반정부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극물 공격, 2021년 초 나발니의 투옥으로 모스크바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2021년 9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이너스(-3.0%) 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에는 유가 상승, 국내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플러스(4.7%) 성장이 추정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등으로 2022년에는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 강화로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치·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반면, 중국과는 교역, 에너지 투자, 금융,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9. 30 구소련과 국교수립, 1991. 10. 12 러시아가 승계 (북한과는 1948. 10. 12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90), 원자력협력협정('99), 관광협정('01), 에너지분야협력협정('02), 항공협정('03), 우주기술협력협정, 가스산업협정('06), 비자협정('10), 해상운송협정('11), 근로활동협정('12), 사증면제협정('14)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7,774	6,900	9,980	승용차,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
수입	14,567	10,630	17,357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640건, 3,011백만 달러

구조적취약성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 지속

- 석유 및 가스 부문이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다소 하락하였으나, 2020년 GDP의 15.2%, 재정수입의 28.0%, 수출의 4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음.
- 2017~20년 기간 중 러시아의 석유-가스 부문은 연평균 GDP의 18.1%, 재정수입의 38.3%, 수출의 58.3%를 점유하였음.
- 한편,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2022년 3월 8일 러시아산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 러시아 경제에 악영향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림 1] 러시아 경제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비중

단위: %(좌측: GDP, 재정수입, 수출, 달러(우측: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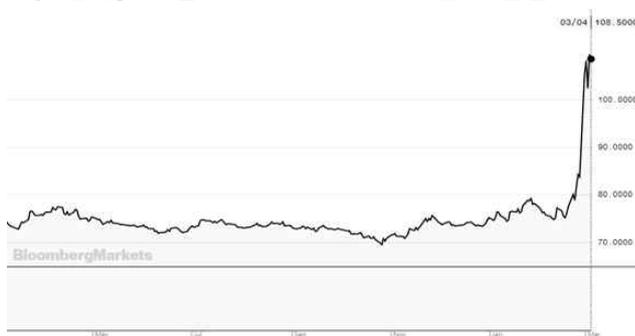


자료: <https://www.rbc.ru>

러시아 루블화 가치의 사상 최저 수준 하락 및 CDS 급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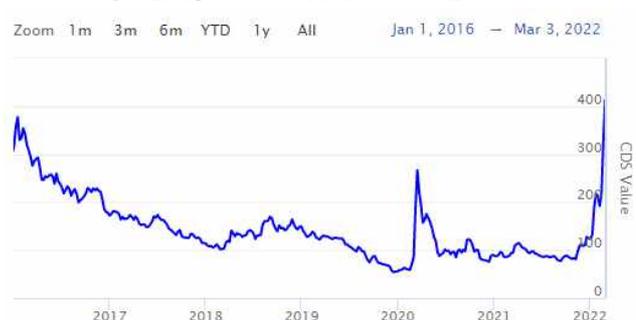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등으로 달러당 루블화 환율이 2022년 2월 28일 105.29로 급등한 후 3월 7일 138.93으로 상승하는 등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 중임.
-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급격히 인상하였으며, 러시아 은행의 외화 환전을 향후 6개월 간 중단한다고 밝힘. 또한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 등이 미국, EU 등 '비우호 국가' 채권자에 대한 외화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러시아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22년 2월 13일 185.0에서 2월 24일 343.6으로 급등한 데 이어 3월 3일 412.5로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그림 2] 미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3] 러시아 CDS 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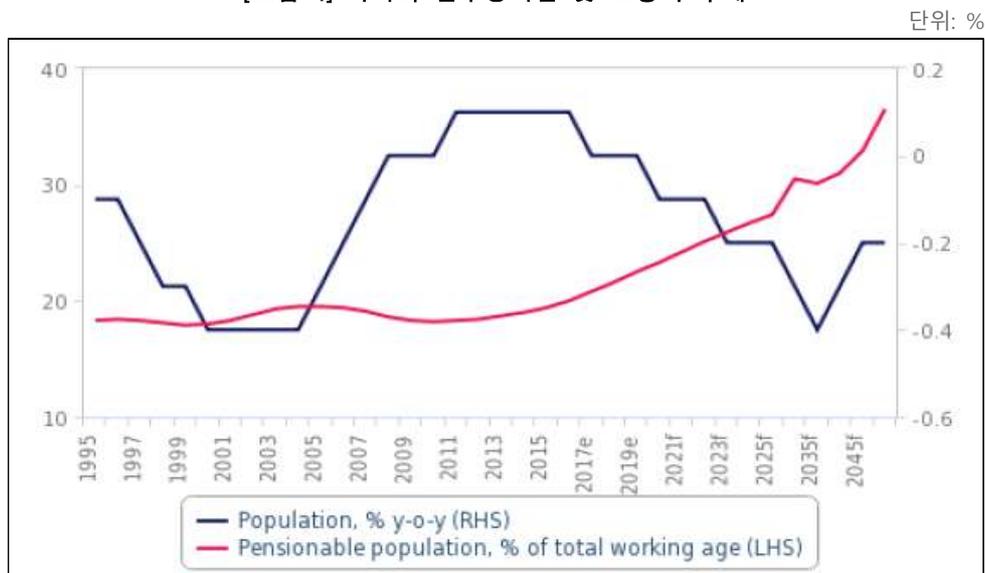
자료: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

구조적취약성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속이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

- 러시아 인구증가율은 2021년 -0.2%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2035년 경에는 -0.4%로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인구 감소가 장기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구구조에서도 고령화가 지속되어 2035년 이후 연금생활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연금 재정 악화로 이어져 연금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나, 과거 연금개혁 추진이 전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전례로 미루어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그림 4] 러시아 인구증가율 및 고령화 추세



자료: Fitch

성장잠재력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로 다국적 기업과의 사업관계 단절, 신규 투자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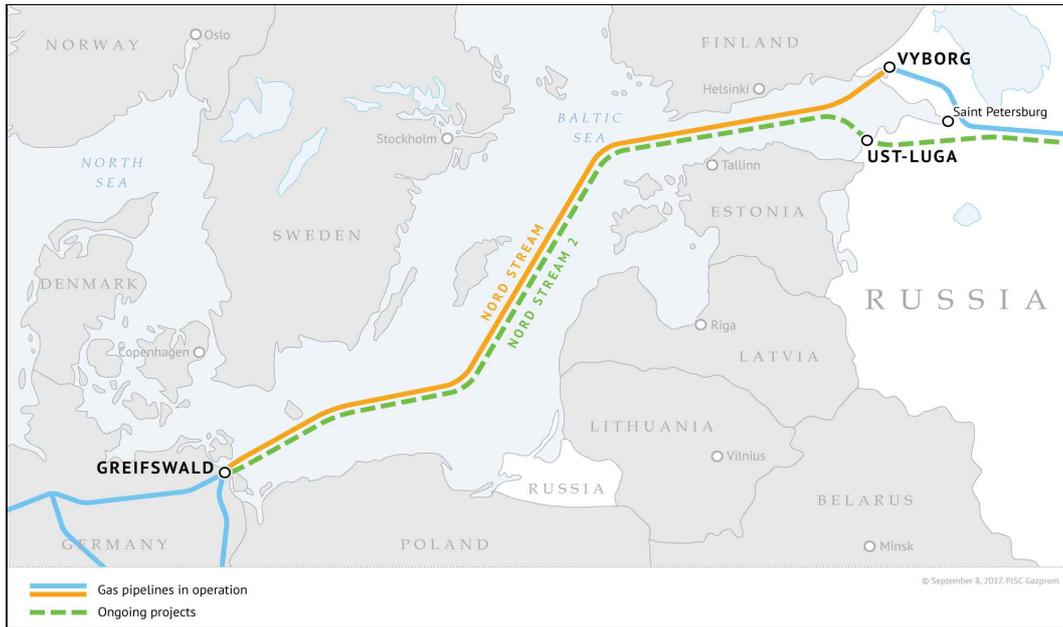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부과에 따라 서방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제한 또는 중단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중단되고 있음. 여기에 루블화 가치 급락이 더해지면서 Moody's, JP Morgan 및 Goldman Sachs는 2022년 러시아 경제가 -7%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T)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트위터는 러시아 국영 매체의 광고 활동을 차단키로 하였음. 애플은 러시아 내에서의 신규 판매와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운영을 제한하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 (금융) 글로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업체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는 2022년 3월 5일부로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에너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엑손모빌, 로열더치셸 등 석유 메이저들이 러시아 내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혀 러시아 에너지 부문의 불확실성이 고조됨.

서방의 대러 제재로 노드스트림-2 사업 전면 중단 상태

-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세계적인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에는 북극 지역에서의 LNG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2020년 말 원유 매장량은 1,078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일 생산량은 1억 667만 배럴(연 5억 2,440만 톤, 2019년 5억 7,240만 톤)로 전 세계 생산량의 12.1%를 점유함. 2020년의 원유 수출은 지역별로는 유럽으로의 수출이 1억 3,820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53%, 개별 국가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8,340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32%를 각각 차지하였음.
- 러시아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2020년 말 37.4조 m³로 세계 매장량의 1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연 6,385억 m³로 세계 생산량의 16.6%에 이르고 있음.
- 러시아는 발트 해를 지나 독일로 연결되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2021년 개통)을 통해 유럽 지역으로의 가스 수출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로 동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 러시아는 2020년 기준 가스관을 통해 1,977억 m³, LNG 형태로 404억 m³의 가스를 수출하여 세계 가스 수출의 25.3%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스관을 통한 지역/국가별 수출량은 유럽 지역 1,677억 m³, CIS 지역 261억 m³, 중국 39억 m³로 집계됨.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총연장 1,200km로, 연 550억 m³의 가스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음.

성장잠재력

[그림 5] 노드스트림-2 가스관



자료: <https://www.gazprom.com>

정책성과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정부 효율성 및 정부 경쟁력에 대해 낮은 평가

- 러시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9년 141개 평가대상국 중 43위를 기록하였음.
- 이는 10년 전인 2009년의 63위(139개국 대상)에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혁신 및 ICT 분야의 순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매년 OECD 국가 및 신흥국(총 64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국제 경쟁력지수에서는 2021년 45위를 기록함.
- 이는 2020년의 50위에서 다소 상승한 것으로, 교육 및 과학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정부 효율성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15개 항목의 설문조사에서 러시아는 숙련 노동인력의 수와 고등교육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 효율적인 법적 환경, 기업 지배구조, 정부 경쟁력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세계은행의 기업 경영여건 순위는 2017년의 35위(190개국 대상)에서 2019년에는 28위(190개국 대상)로 다소 상승하였음.

경제자유도는 유럽국가 중 하위권이며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등의 측면에서도 낮은 평가

- 러시아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하는 경제자유도 지수(Economic Freedom Score)에서 2021년 178개 평가대상국 중 92위에 그쳤으며,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평가대상 45개국 중 4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¹⁾
- 러시아는 사법 효율성, 재산권, 투자자유도, 금융자유도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재정건전성, 세금 부담, 기업활동 자유도, 무역자유도 등에서는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러시아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 등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평가하는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에서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Freedom in the World 2021" 보고서²⁾에서 러시아는 사회적 자유도인 Global Freedom Scores(19점: "부자유"[Not Free])와 인터넷 사용 자유도인 Internet Freedom Scores(30점: "부자유") 모두 조사대상 중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수준(0~100)에서도 최하 수준인 7/100을 기록함.

1) <https://www.heritage.org>

2) ① Global Freedom Scores : Political Rights 5/40 + Civil Liberties 14/60 = 19/100

② Internet Freedom Scores: Obstacle to Access 12/25 + Limits on Content 10/35 + Violations of User Rights 8/40 = 30/100 [평점 구간: 100~70점 Free, 69~40점 Partly Free, 39~0점 Not Free]

정치안정

2021년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로 전국적 시위 발생

- 2021년 1월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체포된 이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모스크바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발생하여 수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4월에도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음.
- 나발니는 2020년 8월 러시아 국내에서 항공기로 이동하던 중에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으며,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음. 2021년 1월 독일에서 귀국 시 러시아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과거의 집행유예 판결(2014년 사기 혐의로 3년 6개월 형)이 실행으로 전환되어 현재 수감되어 있음.
- 서방 국가들에서도 나발니의 독살 시도와 투옥에 대해 푸틴 대통령을 계속 비판하고 있음.
- 2021년 10월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서방 45개 국가들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규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나발니 독살 시도의 진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나발니를 2021년의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푸틴 대통령의 통치 체제에 균열 발생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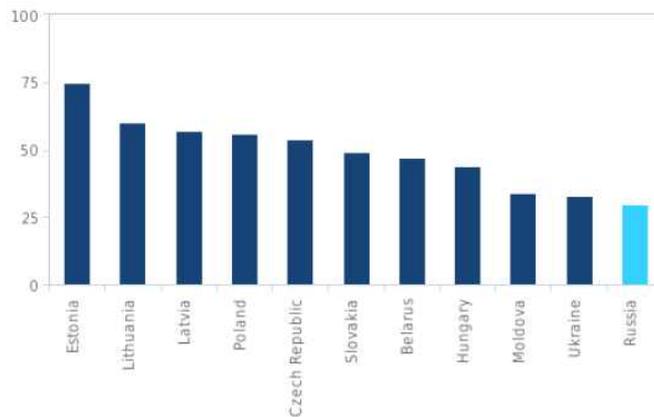
- 2021년 9월의 국가두마(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Yedinaya Rossiya)이 크게 승리하며 현 정부의 통치 기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여당은 전체 450석 중 324석을 차지하여 2016년 총선에 비해서는 19석이 줄었으나, 개헌선인 300석(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을 상회하였음.
- 제1야당인 공산당(CPRF)은 총선에서 18.9%를 득표하여 57석을 확보하여 2016년의 42석에 비해 15석이 증가하였으나,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외에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의러시아당(SRZP)이 27석, 극우 세력인 자유민주당(LDPR)이 21석, 중도우파인 '새로운 사람들'(Novyye lyudi)이 13석을 확보하였음.
-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루블화 환율이 급등함에 따른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의 급상승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러시아 내 반전 시위 등 반정부 여론이 지속 증가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치범 체포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OVD-Inf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의 시위로 2022년 3월 6일 하루에 러시아 56개 도시에서 4,3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체포 인원은 1만 3천여 명으로 추산함.

사회안정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에서 세계 하위권

- 러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지수에서 2020년 전체 평가대상 18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129위에 올랐음. 이는 과거 같은 공산권 진영에 속했던 중·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 러시아의 순위는 2010년 154위(178개국)에서 2015년 119위(168개국)로 상승하였으나, 2020년에는 다시 순위가 하락하여 정부의 부패 문제 해결에서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6] 러시아 및 중·동유럽의 부패지수 비교(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음)



자료: Fitch

소비자물가의 급속한 상승 등으로 사회불안 우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여 소비자물가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으며, 중산층 이하 계층의 경제고통 체감 증가으로 사회불안이 우려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 대비, EIU): 5.5%(‘21.1Q) → 6.0%(‘21.2Q) → 6.9%(‘21.3Q) → 8.3%(‘21.4Q) → 9.1%(‘22.1Q) → 13.3%(‘22.2Q) → 17.4%(‘22.3Q) → 19.8%(‘22.4Q)
- 러시아 하원은 2022년 3월 4일 반 제재법을 통과시켜 연금과 최저임금의 인상을 허용하고, 서방의 제재로 주가가 하락한 러시아 기업이 자사주를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 중임.

ESG 신용영향점수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 Moody's는 러시아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Credit Impact Score)를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하였음.
- (환경) 에너지 부문의 수출 및 재정수입이 국가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탄소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사회)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층 비중의 하락은 노동력 감소는 물론 사회 전반의 역동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되었음.
- (지배구조) 법의 지배, 소유권 확립, 부패 통제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끼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 2014년 러시아의 크림(크림) 반도 합병 이후 계속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상태는 2021년 4월과 11월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러시아가 병력과 전투기를 집결하며 더욱 악화되었음.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시아 분리독립 선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자들 간에 소규모의 군사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 2022년 2월 2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언급한 이후,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개시하고 동·남·북쪽에서 동시에 침공함.

[그림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Russo-Ukrainian_War.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로 서방과의 관계 급격히 악화

- 2014년 러시아의 크림(크림) 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독립주의자들에 대한 지원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제재를 시행 중임.
 - 특히 2020년 8월 발생한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 사건과 2021년 1월의 나발니 체포 및 구금으로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를 시행하여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음.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재가 지속되며 러시아-미국 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미국 정부는 2021년 4월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및 연방기관 해킹을 이유로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으며,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미국 외교관 10명을 추방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동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 배제 등 대러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미국은 3월 8일 대러 추가 제재로 러시아 산 원유, 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러시아는 외국인 자산 압류법으로 러시아인의 권리와 자유 침해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함. 징계조치에는 징계 대상자의 입국 금지, 러시아 내 자산 압류, 대상자의 자산과 관련한 거래 금지, 러시아 내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됨. 또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 맞서 BRICs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교역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국제관계

중국과는 기술 및 우주, 군사, 전력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 러시아와 중국은 2020~21년을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과학,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양국은 공동으로 2030년까지 달 연구기지 설치, 2024년까지 소행성 공동 탐사 추진 등을 비롯하여 우주 분야의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은 2021년 10월 극동러시아 해상에서 10일 동안 대잠수함 전투기, 대형 구축함을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 및 안보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1년 8월에도 양국은 중국 내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부연합-2021'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동 훈련에는 조기경보기, 정찰 및 전투 무인기 등 최신 무기와 장비가 사용되고 1만 여명이 참여하였음.
- 2021년 10월에는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에 따라 극동러시아 아무르 주에서 중국 하이룽장성으로 연결된 전력망을 통해 중국 동북 3성에 대한 전력공급을 확대하였음.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를 옹호하며 영향력 강화 및 서방에 대한 공동 전선 구축 도모

- 중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음.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강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에너지 및 농산물의 대 중국 수출 증대, SWIFT 배제에 따른 중국 결제망 활용 등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중국은 이 기회를 적극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와 함께 서방에 대한 공동 전선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비율 상승 우려

- 2021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러시아에 대한 여신 잔액은 265.8억 달러(중장기 222.4억 달러 및 단기 43.4억 달러)로 집계됨.
- 이 중 연체액은 1억 4,080만 달러(중장기 1억 2,460만 달러 및 단기 1,620만 달러)로 전체 잔액의 0.53% 수준이며, 2021년 3월 말 기준의 1억 3,130만 달러(전체 잔액의 0.49%)에 비해서는 950만 달러 증가한 수준임. 2021년 OECD 등급 기준 러시아(4등급)보다 낮은 아제르바이잔(5등급) 대비 러시아의 연체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에 따라 외환 부족이 심화될 경우 연체 비율 상승이 우려됨.
- 러시아 연체비율(%): 0.44('20.3월) → 0.70('20.9월) → 0.49('21.3월) → 0.53('21.9월)
- 아제르바이잔 연체비율(%): 0.01('20.3월) → 0.08('20.9월) → 0.16('21.3월) → 0.24('21.9월)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22.1)	4등급(2021.1)
S & P	CCC-(2022.3)	BB+(2022.2)
Moody's	Ca(2022.3)	B3(2022.3)
Fitch	C(2022.3)	B(2022.3)

국제신용평가 3사는 러시아 등급 대폭 하향조정

- 2022년 2~3월 S&P, Moody's, Fitch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에 따른 러시아의 접근 가능한 외환보유액 축소 및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 등으로 러시아 등급을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함.
 - * S&P : BBB-('18.2.23.) → BB+('22.2.25) → **CCC-('22.3.3.)**
 - Moody's : Baa3('19.2.8.) → B3(2022.3.3.) → **Ca('22.3.6.)**
 - Fitch : BBB('19.8.9.) → B('22.3.2.) → **C('22.3.8.)**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접근 가능한 외환보유액 축소(S&P), 서방의 제재 강화로 예측불가능한 러시아 정부의 조치(Moody's), 러시아 정부의 통제에 의한 러시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 저하(Fitch) 등을 러시아 경제의 악화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음.
- OECD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ECA의 요청에 따라 2022년 3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4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강화, 루블화 가치 급락 등으로 Moody's, JP Morgan 및 Goldman Sachs는 2022년 러시아 경제가 -7%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이 높음.
- 대표적 반정부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 및 투옥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러시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2021년 9월의 국가두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1만 3천여 명이 체포되는 등 반전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루블화 환율 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대치 상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확대되어 2014년 이후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국제신용평가 3사는 러시아 등급을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조정함.